

취업난에 생계·취업준비형 자격증 '불티'

작년 지게차·굴삭기 자격증 취득자 두 자릿수 증가 실업률 고공행진 속 취·창업 관련 자격증 관심 많아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실업자 증가 등 일자리 찾기가 좁은문이 된 가운데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곧바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계형·취업준비형 자격증을 중심으로 취득자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12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상시시험 합격자는 2207명으로 전년(1445명) 대비 52.7% 증가했다. 190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정기시험 합격자는 3989명으로 전년(4030명)과 비슷했다.

특히 상시시험 12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지난해 자격증 취득자가 462명으로 전년(325명) 대비 42.2% 증가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도 지난해 207명이 취득해 전년(178명) 대비 16.3% 늘었다.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가 인기를 끄는 것은 경력 제한이 없고, 활용도도 넓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의 경우 건설업체나 토목공사업체, 운송·창고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상시시험 중 취업이나 창업하려는 이들이 도전하는 미용사(일반), 한

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여전했다. 지난해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는 196명으로 전년(70명)보다 180% 증가했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는 지난해 359명이 합격해 전년(216명) 대비 66.2% 증가했고, 미용사(일반) 자격증 합격자도 전년(104명)보다 42.3% 증가한 148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접수해 이달 6일 시행한 국가전문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

격시험 접수자도 550명으로 전년(440명)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가자격증에 도전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 실업률이 2.5%로 2005년(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 1월 실업률도 5.2%로 현재 방식의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 충격에 도내 고용환경이 어느때보다 악화된 영향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제주자치도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역·고용 관련 유

관기관과 협업해 도내 국가자격증 취득자와 지역 기업을 연계하는 '월별 국가자격취득자 연계 일자리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제주지사 홈페이지(<http://jeju.hrdkorea.or.kr>)·SNS, 공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동준 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자격시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준비하고,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겨울바다와 관광객 비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진 1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두터운 외투를 꺼입은채 해안가에서 겨울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16~18일 제주 곳곳 비·눈 동반 강풍

17일 산지 5~15cm 적설 예상
이날 체감온도 -4℃까지 하락
남부 제외한 전 지역 강풍특보

제주지역은 16일 오후부터 비 또는 눈 날씨가 예보됐다.

1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3시)부터 밤(9시)까지 강수량은 5mm미만, 산간지역 적설량은 1~3cm로 예상된다. 17일에는 눈 구름대의 발달로 인해 해안지역에는 1~3cm, 제주도 산지에는 5~15cm의 눈이 내리겠다.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겠다. 16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1~3℃, 낮 최고 기온은 10~11℃를 기록하겠다. 17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0~2℃, 낮 최고 기온은 3~5℃까지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4℃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매우 춥겠다.

제주도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특보도 발효됐다. 강풍은 16일 오전에 일시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겠지만 다시 밤부터 매우 강해져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성기자 kms510@ihalla.com

4·3트라우마센터 개소 8개월... 1만여명 이용 치유 프로그램·도수·물리치료·상담 등 진행

지난해 5월 개소한 4·3트라우마센터가 개소 이후 연인원 1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92%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4·3트라우마센터엔 개소 이후 8개월 동안 475명의 이용자가 등록했으며 심리상담·프로그램 등 이용자 수는 월 1337명이다.

그간 4·3트라우마센터는 치유 프로그램(144회·1933명)과 도수·물리치료(3721명)·심리상담(64명)·사례관리(88명) 등을 진행했다. 강정마을 방문 치유프로그램을 총 7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총 183명이 참여했다. 4·3트라우마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4·3트라우마센터는 찾아가는 치유활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내소가 불가능한 희생자와 유족, 강정주민, 원거리 내소자 등을 위한 방문치유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읍면별 방문 프로그램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은 센터장은 "4·3트라우마센터가 위로와 치유의 안식처로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와 함께 강정마을 치유에도 적극 앞장 서 제주형 트라우마센터로 자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희기자

안전한 등교수업 대비 방역 인력 지원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
319개교 848명 투입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학기 안전한 등교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 인력 지원에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이 가동된다. 이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한 인력운용 사업으로 학생수 120명 당 방역인력 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특고 예산지원이 확정되면서 원아수 10명 이상의 병설유치원에도 인력이 단독 배치되는 등 총 319개

교에 848명이 투입돼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현장의 수요를 조사해 전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 인력은 학교 규모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배치된다. 이들 인력은 2월 중 위촉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신학기 학사일정에 맞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3월부터 2학기 초 9월까지 약 120일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 인력을 활용해 학생보호 방역활동, 생활지도 지원, 급식운영 지원 등 학교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라도서관 종합감사 도감사위, 내달 25~31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한라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기간은 내달 25일부터 31일까지다.

도감사위는 2018년 4월 이후 한라도서관에서 추진한 업무 가운데 예산 회계 집행의 투명성, 도서 관리 및 도서관 운영의 적정성,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한라도서관에서 추진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요구제' 시행에 따른 감사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강대희기자

설연휴 15만여명 입도... 음성확인서 제출 1230명

당초 예상 수치 14만3000여명 보다 1만명 늘어
민원 처리는 2만1266건... 방역 위반 신고 95건

설연휴 기간 15만 3852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설연휴인 지난 10~14일 닷새 동안 총 15만 3852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는 당초 예상 수치인 14만3000여명보다 1만여 명 더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4%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0일 3만1489명, 지난 11일 3만6326명, 지난 12일 2만8136명, 지난 13일 2만5135명,

지난 14일 3만2046명 등 하루 평균 3만명 내외를 기록했다.

입도객들 중 공영관광지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건수는 1230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도는 설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입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했다.

도는 입도 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여행객들에게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검사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민원 처리 건수는 2만1266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교통 및 관광 관련 단순 문의가 2만 6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안내 438건, 생활쓰레기 52건, 상수도 민원 7건 등이다. 방역 위반 신고도 95건에 달했다.

강대희기자

2021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전국 1위
- 농산물 수출망 9개국 개척 (수출실적 전년대비 200% 달성)
- 「감귤류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도내 최초 지정

“이러한 성과는 조합원님과 고객님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었기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염원하며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봉주**

